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37호 / 5월 24일

중국진출 多國籍企業의 技術移轉 패턴 변화

1. 개요

□ 최근 1~2년 사이 해외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기술이전 전략이 90년대에 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.

- 첫째, 중국측의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자체적 필요에 의해 기술이전을 양적, 질적으로 증가시킴.
- 둘째, 중국의 고급인재 활용과 시장친화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기초기술에 대한 R&D 투자를 확대함.
- 셋째, 수입관세의 인하로 고품질·고기술 제품에 체화된 기술의 도입이 늘어남.
- 넷째, 다국적 기업과 중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해짐.
- 이러한 변화의 주요인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바,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중의 하나로도 평가할 수 있음.

2.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기술이전 패턴

□ 최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 패턴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음.

- 첫째, 기술도입의 증가와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의 도입임.
 - o WTO 가입 이전 중국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은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기술이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음.
 - o 그러나 WTO 가입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 스스로 보다 치열해진 경쟁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것임. 최근 《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》은 외자기업의 설립조건에서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한 바 있음.
- 둘째, R&D 투자의 확대로 기초기술의 이전이 늘어남.
-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우수인력을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시장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에 직접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.
 - o 이는 과거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단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였음을 감안하면 질적으로 상당히 차별화된 패턴임.
 - o 또한 R&D 센터를 설립한 기업도 모토롤라, IBM, 듀폰, GM 등 모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, 투자 지역도 중국 각지의 대도시로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음.

□ 셋째, WTO 가입에 따른 수입장벽의 인하로 다국적 기업이 첨단기술을 사용한 부품의 수입을 늘리고 있는바, 이를 통한 기술 이전이 활발해지고 있음.

- o 수입관세의 인하로 다국적 기업은 고급 수입품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바,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이 체화된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추세임.

- 넷째, 다국적기업과 중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.
- o 과거에는 다국적기업이 주로 OEM 방식을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을 하였으나, 최근 들어 대학 연구소에 직접 연구개발을 의뢰하여 공동 연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.
- o 이는 중국연구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, 중국문자 식별기술과 같이 시장친화적인 연구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음.

3. 평가 및 시사점

- ☐ 이상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 패턴 변화는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바, WTO 가입에 따른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.
- ☐ 중국정부도 관련 규정의 재정비를 통해 이같은 기술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용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음.
- 최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外資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중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경공업, 방직, 의류, 가전 등의 산업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할 방침임.
- 또한 다국적 기업의 R&D 센터 건립을 《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》의 장려품목에 포함시키고, 세제 혜택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, 지적재산권제도를 정비하여 기술이전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할 방침임.(***)